

# 5·18 가해자-피해자 처음으로 만난다

### 주남마을 유일 생존자 홍금숙씨와 양심 고백 7공수 출신 5·18기념재단 주선... 12일 '광주 평화기행 워크숍' 참여 5월 광주 이야기 나누고 화해하며 트라우마 치유하기로

5·18 민중항쟁 최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주남마을 학살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39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번 만남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를 나누고, 화해를 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할 예정이다.

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제주와 광주, 베트남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2019 광주 평화기행 워크숍'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5·18기념재단,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한베평화재단,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

베'가 공동 주최한 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민간인학살 기록전 '한마을 이야기-풍나-풍넛'의 부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워크숍에는 5·18 당시 주남마을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홍금숙(여·54)씨와 계엄군의 양민학살을 증언한 7공수여단 출신 A씨가 참여한다.

또 베트남전 참전 군인 출신, 제주 4·3 유족, 여순항쟁 유족 등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공식석상에서 계엄군 출신과 광주 민간인 피해자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남마을 학살사건은 1980년 5월23일 오후 2시께 광주-화순간 길목인 광주시 동

구 월남동 인근 도로에서 7·11공수여단이 화순쪽으로 향하던 25인승 미니버스에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8명 중 15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부상을 당한 2명은 11공수 부대원에게 해 확인 사살 당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교복을 입고 있던 홍씨 뿐이었다.

당시 7공수 33대대 중사로 광주에 투입됐던 A씨는 직접 사격을 하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린다. 1989년 1월 국회 광주청문회에 참석해 양심고백을 하며 주남마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부상을 당한 광주시민 2명을 다른 부대원들이 수레에 싣고 간 후 4발의 총성을 들었다"며 "젊은이들이 모두 사살됐음을 직감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A씨는 극우인사들의 협박과 행패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홍씨의 만남을 주선한 5·18기념

재단은 이들이 5·18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제주 4·3 유족, 여순항쟁 유족 등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워크숍은 현재까지 사전 선발인원(25명)만 참여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행사 주최측은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주남마을 학살에 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만남"이라며 "주남마을 학살사건은 최대 3차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출범을 앞두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무관심에... 전남대 총학 명맥 끊길 위기

### 투표율 과반 안돼 회장 선출 못하고 권한대행도 사퇴

전남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참여 부족과 무관심으로 구성조차 못해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시대 변화에 따라 총학생회의 사회 참여 기능이 약화됨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관심이 취업에 쏠리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총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권한대행은 맡았던 황법량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 의장은 학생회 간부들의 편의주의, 예산집행 불투명성, 대학 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선출의 비민주성 등을 꼬집으며 학생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는 지난해 말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찬반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이 과반을 이 루지 못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3일간 온라인 투표에도 투표율은 30%대에 그쳤다.

차기 학생회장 선출에 필요한 선관위원장을 임명할 확대운영위원회 소집조차 불투명해 학생회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못해, 자치 총학생회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5·18민중항쟁기념행사

###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 행사위, 19일까지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민모니터링단은 5·18기념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개선방향 제언, 아카이빙 작업 등을 진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5·18기념행사의 질적, 양적 발전을 이루고 광주시민과 소통하는 기념행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20대부터 50대까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에 관심있는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구글폼(bit.ly/39m51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화재 대피 행동요령 배워요

1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프란치스코 유치원에서 동구청 직원들이 유치원생들에게 화재 대피 행동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동구는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훈련의 하나로 화재·지진 등 재난발생시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지그재그 위험한 음주운전

### 대학생이 차량 막고 신고

광주서부경찰은 1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2km 가까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학생 B(25)씨는 A씨 차량이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수상히 여겨 차량운행을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윤 총경 '빅뱅 콘서트' 티켓도 받아...김영란법 위반 입건

### 승리·유인석 대표 자금형형 혐의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보총경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로부터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총경) 본인이 티켓을 받은 것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말고 국내서 다른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도에 유 대표가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줬다"며 "티켓을 주고받은 사실을 윤 총경과 유 대표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그는 승리와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몽키뮤지엄과 관련 승리와 유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횡령액 수는 수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승려 행세하며 식당 상인들 괴롭힌 주취폭력배 구속

승려 행세를 하며 식당 상인들을 괴롭혀온 40대 '주취폭력배'가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기사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47)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B(여·52)씨가 운영하는 기사식당에서 막걸리 1병을 주문한 뒤 식당 테이블에 올려진 그릇 등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머리를 삭발한 A씨는 개량 한복을 입은 채 엄뿔하며 경남 한 사찰의 스님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는 최근까지 4-5차례 걸쳐 같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앞서 지난달 25일 밤 11시께에는 강진에서 남구 월산동 식당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7만8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술 취한 미군 상대 바가지 요금 받은 택시기사 입건

전북 군산경찰은 "술 취한 미군들로부터 택시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택시운전자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택시로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 2명을 상대로 실제보다 10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툰 미군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군산 시내에서 미군 부대까지 보통 1만4000~1만5000원의 요금이 나오지만 A씨는 미군 카드를 받아 18만여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미군들은 뒤늦게 택시요금에 과다하게 결제된 사실을 알아채고 군 헌병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비 결제 내용을 추적해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군산·박곡석 기자 nogusu@

## 까지 잡는다고 공기총 쏘다가...애꿎은 차량만 파손



○광주도심주택가에서 "까지를 잡겠다"며 공기총을 쏘다가 주차된 차량을 맞힌 40대 포수가 경찰서행.

○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된 A(47)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주택가에서 B(48)씨 소유의 그랜저 차량 위에 있던 까지 1마리를 향해 공

기총(구경 5mm) 1발을 쏘았는데, 까치는 도망가고 차량범퍼 일부만 파손됐다는 것.

○A씨는 이날 광산구 우산지구대에 맡겨둔 자신의 공기총을 찾은 뒤 사격대상을 몰색하던 중 차량 위에 있는 까치를 발견하고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까치를 향해 쏜 총알이 차량 범퍼에 맞은 듯 하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